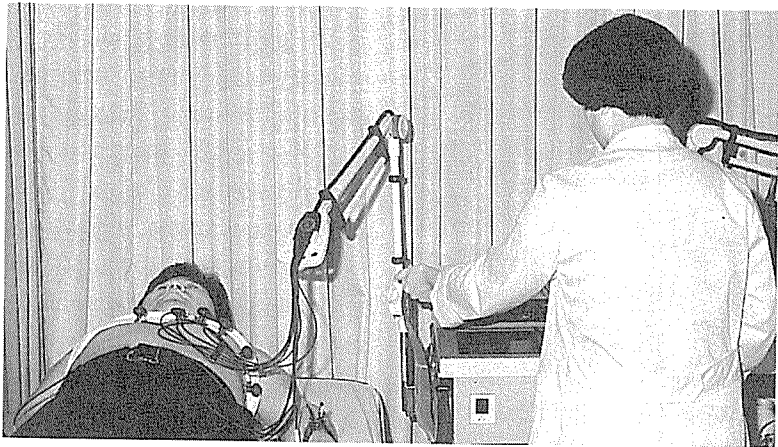


“건강한 사람만이 건강한 사회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충남 당진군 고대면 성산리 고산감리교회 신자 종합검사



충남 당진군 고대면 성산리에 있는 고산감리교회. 신자 100여명의, 농촌교회로는 작지 않은 이 교회의 張宰煥 목사는 지난 4월 3일, 4일 이틀 동안 신자 50여명에 대한 종합건강검사를 건협 대전·충남지부에서 실시했다.

교회 예산으로 검사수수료의 50%를 지원함으로써 특히 눈길을 끈 이번 건강검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겠다는 장목사의 취지에서 시작되고 전개되었다.

생명의 소중함을 새삼 일깨워 준 이번 검사사업의 취지와 과정을 장목사를 통해 들어봤다.

• 건강관리에 대한 의지 부족에 안타까움 느껴

『'87년이었죠.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포항 종합기독병원에서 건강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방의학적 차원의 건강관리가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張목사의 이야기다. 물론 그의 이러한 생각의 밑바탕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기독교적 인간애가 흐르고 있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그가 농촌교회의 목사로 부임하면서 보게 된 농민들의 생활과 건강상태는 그의 이러한 생각을 더욱 확고히 했다고 말한다.

『이곳에 온지 1년 정도됩니다. 대부분의 농촌이 다 그렇겠습니 다만, 농민들은 자신의 몸을 많이 혹사하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동안 느낀 것은, 이 사람들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건강검사는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에 대한 의식을 환기시켜야겠다는데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시작했습니다.』

• 올해를 “건강한 교회”만들기의 해로

장목사는 이러한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우선 올해를 “건강한 교회” 만들기의 해로 정했다.

『많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정신적, 신앙적 건강과 신체의 건강 모두를 소중히 생각하고 건강을 위해 무엇인가 실천하자는 다분히 각성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라면서 장목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이 가장 큼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것이 또한 건강입니다.』라고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건강에 대한 의식을 환기 시키기 위해 이번 건강 검사를 추진했다고 張宰煥 목사는 말한다.





신앙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이
모두 지켜질 때
에야 정말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부정적인 반응을 긍정적으로 조금씩 바꿔나가

그리고 나서, 장목사는 성산리 지역 주민에게, 건강검사를 받아 보도록 권했다.

『처음에는 교회 신자 뿐 아니라 이곳 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더군요.』라면서 그는 검사를 추진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을 설명한다.

『사실,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병도 없는데 무슨 검사냐, 작은 돈도 아니고 몇만원씩 들여서 꼭 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나 등등, 그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가진 농민들에게 왜 자기 건강을 미리미리 지켜주는 것이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물론 그러면서도 그는 결코 강제적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함을 잊지 않았다.

• 검사수수료의 50%, 교회 예산으로 지원

『당초 계획과는 어긋났지만, 어쨌든 교회 신자중 50명 정도가 검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서 검사 수수료의 50%를 교회 예산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라면서 그는, 대단한 생각을 했다는 기자의 말을 극구 부인하면서, 선교적 차원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실천한 것 뿐이라고 강조한다.

• 검사기관 선택에도 신중

그는 또, 검사기관을 선택하는데도 신중을 기했다고 말한다.

『우선은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겠고, 검사수수료나 검사의 정확성 등도 많이 고려했습니다. 견협을 알게 된 것은 전에 당진지방 목사님들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사실 쉽게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몇개 병원과 비교해 보고 난 후에 그래도 가장 많은 부분을 충족시켜 준다는 판단 하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교회신자 50여명은 지난 4월 3일, 4일 양일에 걸쳐 견협 대전·충남지부를 방문, 종합검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위장조영촬영, 간기능검사 등등 총 70여 종목의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먼 길을 버스까지 빌려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오제천 견협 대전·충남지부 사업과장의 이야기다.

그는 또, 『검사결과는 개인별로 통보하고, 동시에 목사님께서 유소견자를 상담·지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한다.

• 신뢰도 향상 위한 홍보에 주력하라

한편 장목사는, 『이번 검사를 추진하면서 견협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견협에 대해 더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견협의 좋은 역할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한 탓으로 큰 병원을 선호하는 분위기에 밀려서는 안되지요.』라면서, 있는 대로 보여주고,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홍보활동에 주력하라는 충고도 잊지 않는다.

• 건강한 신자만이 건강한 교회를—

울진이 고향인 장목사는 현재 부인과 두 아이를 둔 가장이기도 하다. 공해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도 갖고 있는 그는 “건강한 신자만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열심히 할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다.

견협의 좋은 역할.
좀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